

#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김 건 (Geon Kim)\*\*  
김수정 (Soojung Kim)\*\*\*  
윤은하 (Eunha Youn)\*\*\*\*  
한희정 (Hee-Jung Han)\*\*\*\*\*

### 목 차

- |                 |                     |
|-----------------|---------------------|
| 1. 서론           | 3.3 서비스 평가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4 이용자 연구          |
| 1.2 선행연구        | 4. 시사점              |
| 1.3 연구방법        | 4.1 현장연구의 확대        |
| 2. 정량분석         | 4.2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
| 3. 주제별 내용 분석    | 4.3 법·제도·정책 연구의 다각화 |
| 3.1 법·제도·정책     | 5. 결론               |
| 3.2 서비스 개발 및 개선 |                     |

### <초 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 관한 동향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총 73편의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뒤이어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연구 주제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연구의 확대,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법·제도·정책 연구의 다각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기록정보서비스, 국내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연구성과, 기록관리학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research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from 2001 to 2013. A total of 73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summarize research output done so far and identify future research areas. Based on the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research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requires increase of practice-based study, in-depth discussions of theoretical frameworks, and emergence of diverse perspectives of FOIA and relevant policies.

Keyword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Korea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trends, research output, archival studies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godardkim@hanmail.net)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kimssoojung@jbnu.ac.kr)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BK+ 사업단 계약교수(eunhayoun@gmail.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freebirdhhj@naver.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3년 11월 22일 ■ 최종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201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록관의 업무와 기록관리 연구는 주로 관리·보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점차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기록정보서비스란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용자와 기록을 연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Pugh 2005),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관 및 소장기록물을 알리는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233). 최근 기록관들은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록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영역에서도 양적 증가와 함께 연구 주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어떠한 연구 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에 출판된 기록

관리학 분야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논문들 중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과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관리학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크게 기록관리학 전체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경우와 기록관리학의 특정 하위 영역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김희정(2005)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5년간 발간된 국내와 미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중심으로 저자들 간의 동시인용빈도를 조사하여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당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은 법·제도·정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전자기록물 관리 영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보기술 기반의 기록관리 연구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태우, 이진영(2009)도 초기 국내 기록관리학의 연구가 법률 및 정책·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점차 전자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보존, 조직화 등 연구 주제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초반은 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많았기 때문에 법·제도·정책에 관한 저술이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가 성숙해지면서 주제영역이 다양

하게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5종에서 선정된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 145건을 중심으로 문헌 클러스터링과 문헌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기록관리학 지적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2003년까지를 1기로 하고 2004년 이후를 2기로 설정하여 시기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1기(2001-2003)에서 2기(2004-2006)로 넘어오면서 가장 성장한 주제 영역은 기록정보서비스와 전자기록관리·디지털보존으로 향후 이들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할 것임을 처음으로 예측하였다.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의 연구 역시 논문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의 지속성과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후반기 강성장형 연구 대상으로 정보서비스와 법, 평가, 메타데이터를 제시하였다.

한편, 기록관리학 관련 특정영역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로사, 김유승(2009)이 정보학에 대한 연구동향을 발표한 것을 필두로 김희정(2011)과 이소연(2011)은 각각 웹 아카이빙과 전자기록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최재희(2011)는 기록물 평가론에 관한 연구동향을, 설문원(2012)은 기록 분류에 관한 연구동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판준, 서혜란(2012)은 전자기록분야의 연구 영역과 동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 내용에서 뿐 아니라 분석 기법에서도 점차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연구는 기록관리학 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간의 연구 성과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주제 및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됨에 따라 최근 들어 기록관리학 하위 분야별 연구동향에 대한 논문들이 출판되었으나 아직까지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 1.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계열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그리고 문헌정보학 계열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6종의 학술지의 목차를 조사하였다. 기간은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로 정하였으며 논문의 제목에 ‘기록정보서비스/정보서비스/서비스’, ‘정보조사제공’, ‘공개’, ‘열람’, ‘이용’, ‘활용’, ‘검색/탐색’, ‘컨텐츠’, ‘전시’, ‘교육’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중심으로 초록을 확인하여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문만을 추려내었다. 기록정보서비스를 중심 주제로 삼은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록관리를 주제로 하면서 일부 정보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집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 논문은 총 73편이었다(〈부록 1〉 참조). 조사된 논문

들은 먼저 정량분석을 통해 학회지별 논문 발표 현황, 연구자 유형, 연구방법의 종류, 연구대상 기록관 유형, 주제별 현황 등을 조사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뒤이어 각 세부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부족했던 연구 주제들을 인식하고 향후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연구되어야 할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정량분석

학술지별로 발표논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01년에 처음으로 4편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문이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이재윤 외 2009; 김희정 2005)에서는 2004년까지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기록관리학의 연구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발표된 것으로 조사된 이유는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가 설정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범위가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학술지의 종류 또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회지별로는 기록관리학회지에 38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기록학연구지에 21편이 발표되어 기록 관련 전문학회지에 집중되어 발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별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단독 저자의 신분이 교·강사인 경우가 18건, 교·강사와 학생, 연구원, 기록실무자 혹은 회사원과의 공동연구가 22건으로 교·강사가 참여한 연구가 총 40건이며 이는 전체 연구의 54.8%에 해당하였다(<표 2> 참조). 반면에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와 같은 기록실무자가 참여한 연구는 17건의 단독 연구와 4건의 공동연구를 합하여 총 21건, 전체 연구의 28.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각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 주로 사용된 연구방법은 사례분석과 이론전개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은 주로 해외 사례가 분석되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와 기관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영국, 호주의 국립기록관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설문조사나 관찰조사보다는 거의 대부분 해외 국

<표 1> 학회지별 발표논문 현황

학회지명 \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기록관리	1	-	2	1	-	4	3	4	6	4	5	6	2	38
기록학연구	2	1	-	-	1	1	3	1	2	4	3	-	3	21
정보관리	-	-	-	-	1	-	1	2	1	1	-	1	-	7
도서관정보	-	-	-	-	-	1	2	-	-	-	-	-	-	3
비블리아	1	-	-	-	-	1	-	-	-	-	-	-	-	2
문헌정보	-	-	-	-	-	-	-	-	1	1	-	-	-	2
전체	4	1	2	1	2	7	9	7	10	10	8	7	5	73

\* 2013년 7월 현재

〈표 2〉 연구자별 분포\*

연구자 주제	교수 · 강사	기록 실무자	학생	연구원	기타**	공동				계
						교수/ 학생	교수/ 기록실무자	교수/ 연구원	교수/ 기타**	
계	18	17	9	4	3	10	4	3	5	73

\* 학생이 기록실무자나 회사의 직위를 동시에 갖고 있을시, 기록실무자/회사원으로 표시

\*\* 기타: 사서, 교사, 회사원 등

〈표 3〉 연도별 연구방법론\*

연구방법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사례분석	-	1	-	1	-	4	4	5	3	4	4	-	
이론전개	3	-	2	-	1	2	2	-	3	2	2	1	1	19	
설문	1	-	-	-	1	-	1	-	2	1	1	3	1	11	
면담	1	-	-	-	-	-	1	1	1	2	-	4	-	10	
웹사이트 평가	-	-	-	-	-	-	1	-	1	1	-	1	-	4	
웹사이트 분석	-	-	-	-	-	1	-	1	-	1	-	1	-	4	
시스템구축 및 평가	-	-	-	-	-	-	-	-	-	1	-	1	-	2	
방문관찰	-	-	-	-	-	-	1	-	1	-	-	-	-	2	
실험연구	-	-	-	-	-	-	-	1	-	-	-	-	-	1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	-	-	-	-	-	-	-	-	-	1	-	-	1	

\* 연구방법이 두 가지 이상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복수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표 4〉 적용 기관별 연구 현황\*

기관 유형	국내							국외
	국가 기록원	대통령 기록관	주제 사료관	대학 기록관	국회 도서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중앙행 정기관	해외기록물 관리기관
합계	20	4	4	3	2	2	1	2

\* 연구를 적용한 기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복수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가기록관의 웹사이트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2006년 이후 연구 논문 수의 증가와 함께 연구방법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로도 여전히 이론전개와 사례분석에 연구방법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차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연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각 연구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연구를 적용하도록 한 대상 기관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현재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특정 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연구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록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종류의 기관들은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연구 적용 대상기관은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이었으며 민간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주제를 크게 4개 영역, ① 법·제도·정책 영역, ②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영역, ③ 서비스 평가 영역, ④ 이용자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영역은 설문원(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① 검색·열람서비스, ② 부가가치서비스, ③ 활용촉진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서비스는 ① 기록 콘텐츠 개발과 ② 전시로 세분화하였다.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영역의 연구가 총 3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록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책·제도에 관한 연구도 22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평가와 이용자 연구 영역은 각각 8편에 불과하였다. 주제 영역을 시기별로 보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서비스 관련 주제가 확대되고 논문의 수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를 온라인 환경을 대상

<표 5> 연도별 주제 분석

연도	주제	법 제도 정책	서비스개발 및 개선					이용자 연구	서비스 평가	소계	
			서비스 개발 및 개선*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콘텐츠 개발	전시				
01	3	-	-	-	-	-	1	-	-	4	
02	1	-	-	-	-	-	-	-	-	1	
03	1	-	1	-	-	-	-	-	-	2	
04	-	-	-	-	1	-	-	-	-	1	
05	1	1	-	-	-	-	-	-	-	2	
06	1	1	-	1	1	1	1	1	-	7	
07	1	2	1	-	1	-	-	2	2	9	
08	3	1	-	-	3	-	-	-	-	7	
09	4	-	-	-	1	1	1	2	1	10	
10	2	1	1	-	2	-	2	1	1	10	
11	2	-	-	-	4	-	-	1	1	8	
12	-	2	-	-	-	-	1	1	3	7	
13	3	-	-	-	1	1	-	-	-	5	
소계	23	8	3	1	14	3	6	8	8	-	
합계	22	35							8	8	73

\*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써 검색·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활용촉진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연구  
 \*\* 콘텐츠개발, 전시 등 다양한 부가가치서비스를 포괄하는 연구

〈표 6〉 온라인·오프라인 연구

연구영역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합계	35	6	32

으로 한 것과 오프라인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연구 중 절반가량이 온라인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 두루 적용되는 법·제도·정책에 관한 연구를 제외한 서비스 개발 및 개선, 그리고 서비스 평가에 관한 총 43건의 연구 중에서 온라인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것이 2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정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기록관 온라인 서비스 개발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와 법령·제도·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 기록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기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민간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제별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73편의 논문을 앞에 언급한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

된 논문은 각 영역의 연구 동향별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거나 연구자에 의해 연구 내용의 중요도가 다른 논문들보다 높다고 평가된 연구들이다.

#### 3.1 법·제도·정책

국내에서 기록정보서비스는 정보공개와 저작권과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다루는 연구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법과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2001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정량분석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영역 중 두 번째로 많은 연구 업적을 생산해내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법과 정책에 관한 주제를 크게 2영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저작권·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구분하였다.

법과 정책 연구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영역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연구 영역이다. 이들 중 정보공개 연구 성과들은 대개 원활한 공공정보 이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과 「정보공개법」의 사회,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설문원(2001)과 경진(2002)이 「전자정부법」과 「정보공개법」 하에서 기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을 필두로, 윤여진, 김순희(2009), 임준희, 이준기(2010) 등의 연구가 있

다. 설문원(2001)은 정보공개제도가 종이 기록물의 공개와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물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히며 전자기록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건(2002)도 미국과 캐나다의 전자정보법과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정보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록의 전자화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윤여진, 김순희(2009)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가 학술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록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영구기록물의 학술 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정보공개법」이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보공개와의 연관성 하에서 공공기록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임준희, 이준기(2010)는 기록연구사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와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업무제공 양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정보공개 하에서 공무원의 정보제공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하의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연구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이용자와 기록연구사들의 부딪치는 기록관리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영역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적 측면의 연구 이외에 「정보공개법」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현행 정보공개 제도 하에서 공공기록관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원규(2005), 조영삼(2009), 김유승(2010a), 김유승, 전진환(2011), 이상민(2013) 등은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주장하며 정부 기록의 공개·비공개 현황과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이원규(2005)는 정보공개제도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원활한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기록물 관리가 열람실 서비스를 비롯한 업무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진수(2006)는 행정기관의 행정공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지적했고, 조영삼(2009)은 2006년 이후에 추진된 기록관리 혁신 체계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록물의 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내부 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기록의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공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엄밀한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김유승(2010a)과 김유승, 전진환(2011)은 거버먼트 2.0의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공공정보서비스를 분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상민(2013)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 혁신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는 두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했음을 밝히면서 정보공개의 궁극적 성공여부는 정치적 목표와 가치의 차이가 아닌 민주적 정치 환경과 국민의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한국의 개혁

은 아직 미완인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정보공개와 함께 민주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기록물의 공개·비공개와 같은 정치적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연구 영역으로 「정보공개법」과 상충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정경희(2007b)와 시귀선(2009)은 저작권이 공공영역의 정부 저작물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김정애(2011)는 영국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법」과 「데이터보호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공공기록물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공공기록물에 대한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경우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통용되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기록정보서비스 과정에서의 저작권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경희(2007b)는 국내 저작권법은 정부저작물 중 일부만을 공적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일부저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부처의 이용허락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시귀선(2009) 역시 국내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법」, 「저작권법」의 상관성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애(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정애(2001)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이러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은 공공기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보의 ‘공개’ 뿐 아니라 합법적 ‘이용’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이한 목적을 가진 법률 간의 조율은 기록관리 업무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나아가 기록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2 서비스 개발 및 개선

#### 3.2.1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일반

특정한 기록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이원영(2005)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원영(2005)은 공공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에서의 정보서비스 이론과 국회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기록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써 명문화된 접근 정책 수립, 정보서비스 프로그램 개

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듬해에 조민지(2006)는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 세분화를 통하여 그룹별로 맞춤 프로그램 제공, 연구지원,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지원, 온·오프라인 전시,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통로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영숙(2007)은 국가기록원의 정보서비스 발전을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확대와 기록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록물 열람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표준현장 제정을 권고하였다. 장혜란, 이명희(2008)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기본서비스(기록관 안내, 방문열람, 정보공개), 확장서비스 I(이용교육, 견학, 전시, 출판), 확장서비스 II(학습지원, 교수지원, 연구조사), 상호작용서비스(웹 2.0 서비스)의 4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실제 기록관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각각 다른 종류의 기록관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안 내용이 유사하고 사실상 어느 기록관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유형에 상관없이 국내 기록관 정보서비스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기본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빈약한 초기 연구 환경에서 다수의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필요 요건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의 특성상 개별 기록관의 고유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기록관 유형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요건들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 사례 분석을 기초로 하는

연구들은 초기에 기록관의 기본 서비스 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에는 유용하였으나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개별 기록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국내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한 이해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기록관에서 아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이용자들에게 SNS를 통한 기록 제공, 전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록관의 구체적인 서비스 현황,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장벽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공유된다면 많은 기록실무자들이 자관 정보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 3.2.2 부가가치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서비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공개된 기록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분야가 바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하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정보콘텐츠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설문원, 김익환(2006)은 기록 콘텐츠 모형을 설계하면서 기록콘텐츠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원자료와 그 맥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초콘텐츠

츠, 주제별로 분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간의 연계콘텐츠, 기초콘텐츠와 연계콘텐츠에 대한 해석과 서술 정보를 포함한 해석콘텐츠가 그것이다. 하지만 전수진(2008)은 기초콘텐츠를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의 전 단계로 간주하면서 연계콘텐츠와 해석콘텐츠만을 기록정보콘텐츠의 테두리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류한조, 김익한(2009)은 기록콘텐츠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검색 도구를 넘어 특정 대상을 재현하는 재현물로 기능할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건축문화재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콘텐츠 개발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결국 기록관에서의 콘텐츠 개발은 단순히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록물을 수집·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이용자들이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행위라 할 수 있다.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학교 수업이나 자발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이다. 이 분야의 첫 번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심성보(2007)는 교사가 일차사료를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수·학습을 운영하면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교육과정의 분석임을 지적하면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의 절차와 그 특성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후에 이은영(2011)은 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을 예로 보다 상세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절차를 제시하고 예시 설계를 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한편, 한현진, 이수상(2008)은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이 아닌 효과성을 평가한 유일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이들은 자원기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록-자원기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후속연구로 이용자별 학습지원서비스 개발과 기록정보 활용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과목에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기관과 이용자 집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김솔(2013)은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에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의 경우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문가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혹은 기록물을 직접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 이용자 유형을 세분화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발된 기록콘텐츠의 효과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서비스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기록콘텐츠 개발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덜 받아온

영역은 전시 서비스 영역이다. 김연주(2009)는 박물관과 전시비교를 통해 국내 아카이브 전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최석현 외(2013)는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필요성 및 활용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연구는 각각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에 관한 첫 번째 연구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많은 초기 연구가 그렇듯이 사례분석을 통해 전시의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 논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재훈, 이경훈(2006)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 전시 사례를 통해 전시 기획부터 기록물의 선별 및 전시 실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한 기록관의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전시의 참고유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과제로는 기록관의 유형, 전시 대상 기록물의 세분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시 기획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2.3 검색·열람서비스

검색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검색도구의 개발과 제공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룬 논문의 수는 매우 적다. 먼저 하은미, 이수상(2007)은 국내외 탐색도구 구축사례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기록관에서 기록물 탐색도구의 기술 표준인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국내 대학기록관 탐색도구들의 문제

점은 첫째, 기록물의 특성인 집합적 기술과 계층적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서와 같이 아이템 수준의 기술만 반영하고 있고,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기술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셋째,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기술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찍이 이원영(2005)이 지적한 국회기록 검색시스템의 문제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학기록관 탐색도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추측된다. 아쉽게도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특정한 기록관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탐색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하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진화하고 웹을 통한 기록관으로의 접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차 이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검색서비스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인 설문원(2010)의 연구는 기록검색도구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콘텐츠 개발이나 기술 적용 등 실용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에, 그는 새로운 검색도구의 출현에 따른 전망과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주제 중심의 검색도구를 맥락을 중요시하는 출처 기반의 검색도구와 잘 연계되도록 구조화시킴으로써 출처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검색도구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검색도구에

주제 해설을 포함하고 검색도구 작성에 이용자 참여를 장려하면서도,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제 해설이나 이용자가 기술한 내용에 질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단순한 소개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닌 기록관리학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원칙은 무엇이고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2.4 활용촉진서비스

초기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였듯이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기록연구사와 이용자 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활성화이다. 우수영(2006)은 전통적인 기록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직접적인 대면을 벗어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활발해진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환경에서의 전자적 질의·응답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질의·응답 서비스의 구조, 관리, 평가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록관과 이용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관한 첫 번째 연구를 내놓았다.

2000년대 중반에는 웹 2.0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와의 소통방식과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웹 2.0 기술을 기록관리학에 처음 소개한 연구자는 남재우, 김성희(2009)로 이들은 기록관 이용자들의 웹 2.0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유용성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웹 2.0의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한 서비스는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Open API, 최신정보나 공지사항을 전달해주는 RSS,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안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JAX로 웹 2.0 기술 중에서도 기록관의 통제력이 강하고 이용자의 참여가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들이므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기록 정보 생산에 참여하기보다는 여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록관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유승(2010b), 설문원(2010)과 같은 연구자들은 웹 2.0의 핵심요소인 이용자 중심성과 개방성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형식으로 위키를 꼽으면서, 기록관의 제한된 인적 자원과 지식의 한계를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웹 2.0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용자의 수동적인 태도 사이의 간극은 좀 더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참여를 끌어낼 동기부여 요인은 무엇인지, 이용자 참여는 어떠한 형태가 적절할지, 어떤 종류의 웹 2.0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국내 기록관 환경에 적합한 웹 2.0 기술의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이용자의 웹 2.0 기술에 관한 인식 연구, 그리고 이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국내 기록관에서 웹 2.0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 웹 2.0 기술을 구현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 강혜경, 박재홍, 김용(2010), 강혜경, 김용(2012)은 각각 RSS와 SNS를 이용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기록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 요소와 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관련 정보통신기술들이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웹2.0을 넘어 웹 3.0으로 진화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에 적용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발굴하여 활용촉진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기록관 홍보 전략, 마케팅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3.3 서비스 평가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적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는 웹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장희정(2012), 김현지, 이해영(2009), 이운주(2007)는 대학기록관, 국가기록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에서 제공되는 웹기록정보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기록관들의 웹사이트를 실제로 분석함으로써 웹기록정보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평가항목들은 하위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게 ① 콘텐츠(기관 및 이용안내,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② 웹사이트 디자인(접근성, 화면디자인, 네비게이션, 이용자

와의 상호작용성 등), ③ 검색(검색의 용이성, 기록의 계층화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분석 결과, 기록관 웹기록정보서비스의 공통점인 문제점들로는 첫째, 기록을 활용한 콘텐츠가 대체적으로 빈약하고, 특히 전시, 학습지원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준별 맞춤 서비스 등 부가가치형 콘텐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록관 웹사이트 접근성 및 화면 디자인의 개선, 그리고 기록관과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검색의 측면에서는 검색시스템들이 기록의 계층 표현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와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합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웹사이트 디자인을 제외하고,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확충, 그리고 편의성 있는 검색시스템의 개발은 '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일련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기록관 웹사이트를 일차원적으로 분석한 반면에 서은경, 손주영(2012)은 대학기록관 웹사이트 평가를 위해 내용분석, 유용성, 사용성 만족도, 정보품질, 웹표준 준수여부를 포함한 총 5가지 관점에서 메타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웹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웹기록정보서비스 평가 연구들은 웹사이트 자체의 디자인·기능, 그리

고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용자 관점에서의 만족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이용자 자체의 특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해영 등(2007)의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관을 방문, 관찰하여 오프라인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이다. 이들은 NCA(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PSQG(public services quality group for archives and local studies)에서 개발한 평가 기준 및 문헌조사를 통해 총 4개의 평가항목인 접근성, 서비스 지원, 이용자 서비스, 시설 및 장비를 선정하고 방문 관찰을 통해 평가 항목별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 직원 부족, 규정 미비, 열람실 환경 미비, 그리고 서비스보다 보존 중심의 정책, 그리고 홍보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록정보서비스의 품질 평가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한수연, 정동열(2012)로부터 시도되었다. 이들은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구성개념 및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신뢰도 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한수연, 정동열(2012)의 연구는 단순히 유관 분야에서 사용된 평가기준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관습을 지양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의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고유한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기록관계에서는 도서관계의 LibQual+같은 표준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한수연, 정동열(2012)이 제시한 평가 도구에 대한 검증 연구 혹은 새로운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평가가 시행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 3.4 이용자 연구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바로 이용자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종종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기록정보서비스의 모델로 삼지만 기록관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자와 달리 기록관 이용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기록의 구조와 특성이 도서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탐색행태는 도서관 이용자와는 매우 다를 수 있다(윤은하 2012). 그러나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영역에서 특정 기록관의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연구가 다수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조사한 연구로 정경희(2007a)는 교사와 학생을 기록관의 주요 이용자로 설정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기록물과 기록관에 대한 인식, 기록물 이용 현황, 기록물 탐색 행태, 장애 요인, 수업에서 기록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최재혁, 김희섭(2009)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잠재적 이용자 집단인 기록관리학 전공자와 기록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김지현(2012)은 앞선 연구들이 기록관의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보다는 잠재적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서울기록정보센터의 실제 방문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의 인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북미에서 수행된 아카이브 매트릭스 프로젝트(archival metrics project)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용자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 설문지가 향후 국내 이용자 연구에서 여러 기록관을 대상으로 사용된다면 동일한 척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기록관 간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해영(2011)과 정경희(2006)는 설문이나 면담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검색어나 전자게시판의 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검색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해영(2011)은 분석 결과를 기록관 콘텐츠서비스 및 웹사이트 메뉴 설정,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정보학에서는 웹 검색엔진이 등장한 이래로 검색어 분석을 통한 이용자의 질의 패턴과 검색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

으며, 이해영(2011)의 연구는 검색어 분석이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경희(2006)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3,706건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어떻게 왜 기록물을 이용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자의 유형은 질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예컨대 가족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강제징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많았고 연구자와 미디어 제작자들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질문 특히 열람과 관련한 질문과 기록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용자 집단별 맞춤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음 해에 정경희(2007c)가 발표한 기록관 이용자 세분화 방안 연구와 맞닿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정경희(2007c)는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장세분화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록관의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용자 집단을 인구통계적, 지리적, 심리적, 이용 등의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별 기록 정보 요구와 정보추구행태 등을 세분화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의 정보요구나 이용행태 등 구체적인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 이용자에게 학자·연구자, 족보학자, 언론인,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등으로 이용자 집단을 구체적

으로 세분화하고, 각 집단의 정보요구와 정보 탐색행태, 그리고 이용행태 등의 차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록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시사점

국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는 200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실린 조민정(2001)의 이용자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이제 불과 십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서구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일천한 역사에 비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는 것이다(정경희 2007c). 지난 십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기록학계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 그간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현장연구의 확대,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법·제도·정책 연구의 다각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4.1 현장연구의 확대

기록정보서비스 분야는 기록관이라는 특수

한 환경에서 이용자 접점을 탐구하는 연구 영역이므로 기록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선진사례의 소개나 도입에 그치고 있고 기록관 이용자, 실무자, 혹은 현장으로부터 수집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현장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록실무자가 참여한 연구가 교수·강사가 참여한 연구의 수에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교수와 기록실무자와의 공동연구가 겨우 네 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기록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실무 영역과 연구 영역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소연(2011)은 전자기록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전자기록뿐만 아니라 기록관리학 전반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인접학문인 문헌정보학에서도 현장 연구의 부족, 그로 인한 연구와 실무의 간극을 지적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표순희(2009)는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EBLIP)'라는 개념들을 이용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연구 및 출판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와 실무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EBLIP란 '근거' 즉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된 신뢰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노력

을 의미한다(표순희 2009). 물론 교수들도 이러한 신뢰성 높고 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증연구가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수한 근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표순희(2010)는 현장 실무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직의 지원, 연구결과 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교육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기관은 실무자의 연구 활동과 출판을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간적 배려를 제공하고, 연구·출판 활동에 따른 혜택 제공 장치를 마련하여 연구수행을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Evidence-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와 같은 학술지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 학술지는 매호마다 실무를 위한 근거로써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논문들의 연구목적,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등을 요약, 비평하여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등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연구의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기록학계에서도 이러한 근거중심실무의 개념과 실천방안의 적용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내 기록학계에서 근거실무만을 다루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국기록관리학회지나 기록학연구와 같은 기존의 학술지에 우수한 현장연구를 선별하여 요약과 비평을 실음으

로써 기록실무자에게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을 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정보서비스 분야는 기록조직이나 전자기록 관련 업무와 같이 법이나 표준에 의해 수행되거나 규제받기 보다는 각 기록관의 목적과 대상 이용자집단의 요구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제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록실무자들이 기록정보서비스 개발 과정과 시행착오 경험, 이용자로부터의 피드백, 서비스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공유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축적함으로써, 기록실무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해당 기관에 응용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연구의 부족 현상은 원천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부족과 이에 따른 기록 실무자들의 서비스 경험 부재를 들 수 있다. 기록정보서비스는 대개 기록실무자의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되어 전문성을 평가받는 업무이기보다는 자료관 사서의 전문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서와 기록실무자의 업무 분담이 명확한 기관일수록 기록 실무자가 기록정보서비스 현장에 파견되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이 때문에 기록실무자가 실제 이용자를 대면하여 이용자 요구나 실제 이용행태를 파악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록 실무자의 현장 경험 부재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기록서비스 품질 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장 연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의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기록실무자의 서비스 능력 배양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경험이 축적되어 질 높은 현장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모 기관 경영자의 기록관리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미래의 기록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방법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실천성 높은 연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2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

기록관리학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즉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록관리 실행의 결과와 기록관리 학문에서 축적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실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현장연구의 활성화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기록관리학 발전을 위하여 알맞은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쉽게도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기록 콘텐츠 개발 등 주로 실무적 목적의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그동안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에서 이론적 측면의 연구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 기록관리가 독립된 가치와 목적을 지닌 연구 영역이 아니라 정부 정보공개제도의 청구 대상이나 혹은 그 절차와 동일시되면서 기록정보서비스의 본질이 정부 행정업무의 일부로 축소되어온 사실과 관련이 깊다(윤은하 2012). 둘째, 우리나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인터넷이 이미 보편화된 2000년대 중반에 본격화되면서 기록정보서비스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실무적인 개선책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록정보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이론적, 학술적 토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론적 토의의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용자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란 무엇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용자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서은경 등(2006)은 기록정보의 검색·열람서비스라는 단순한 서비스를 벗어나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그리고 일반 이용자를 위한 특장주제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로 인식하였다. 이원영(2005)은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기록의 생산 당시부터 이용자를 고려한 정보서비스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개념은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시 출처주의 등의 기록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의 맥락 정보를 종합화함으로써 기록의 식별 및 검색, 활용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윤은하(2012)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는 단지 서비스 단계 뿐 아니라 기록의 선별과 관리, 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이용자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기록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포괄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 중심이라는 개념은 기록정보서비스에서 빈번히 등장하지만 아직까지 이 개념이 명시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자별 이견을 좁히고 기록정보서비스의 원칙과 개념을 확립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지식기반을 확보하는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기록관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록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기록정보서비스의 본질과 의미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4.3 법·제도·정책 연구의 다각화

법과 정책 연구에 있어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영역은 「정보공개법」,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특히 「정보공개법」은 연구 영역에서 기타 법령에 비해 중요성을 더 인정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기록정보서비스의 논의는 대개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 공개,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원칙 등 법령상에서 명시한 규정의 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원영 2005). 그리하여 기록관리의 내적 속성과 이용자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부 거버넌스 실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분석에 가려져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기록관들이 정부 기관 뿐 아니라 문화 기관이나 민간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 역시 개별 기관에서 다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록정보서비스가 「정보공개법」과 더불어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 이외에 일반 문화 기관의 다양한 방문객이나 학술 연구자들의 일상적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 또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기록관의 수가 증가하고 기록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정보공개법」 이외의 법적인 영역, 즉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영향력을 더욱 더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의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록관리 연구 영역이 민간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역시 「정보공개법」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 이루지는 여러 서비스 관행과 전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향후 새로운 영역에서 기록정보서비스가 수행하는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정보 서비스 원칙과 절차, 모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 계열의 학회지 6종을 조사하고 총 73편의 연구 논문을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들은

학회지별 논문 발표 현황, 연구자 유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기관별 유형, 주제별 분석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등 기록 관련 전문학회지에 집중되어 발표되는 경향이 있었고, 연구 영역별로는 '서비스 개발 및 개선'과 '법·제도·정책' 영역이 각각 35편과 22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6년 이후 연구 논문 수의 증가와 함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부가가치서비스, 검색·열람서비스, 활용촉진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관련 주제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 편수 역시 63편으로 급증했다는 점은 이전에 비해 연구의 양적, 질적 변화가 뚜렷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의 소개나 사례분석에 그친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아직까지 기록학적 이론과 원칙에 근거한 깊이 있는 논의나 현장업무에 근거한 실질적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영역에서 지적 구조의 변화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보이는 특징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대연구로 활용되기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알림〉**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 고 문 헌

강혜경, 김용. 2012. 모바일 환경에서의 SNS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33-58.

강혜경, 박재홍, 김용. 2010. RSS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7-29.

경건. 2002.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전자정보공개제도(電子情報公開制度). 『기록학연구』 5, 111-148.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김술.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59-79.

김연주.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03-131.

김유승. 2010a.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김유승. 2010b.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31-52.

김유승, 진진환. 2011.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국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47-66.

- 김정애. 2011.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9, 225-268.
- 김재훈, 이경훈. 200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전시: 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기록학연구』 13, 287-320.
- 김지현. 201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67-187.
- 김현지, 이해영. 2009.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 개발과 서비스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59-78.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김희정. 2006.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김희정. 2011.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웹 아카이빙 주제영역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35-248.
- 남재우, 김성희. 2009.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Web2.0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23-146.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류한조, 김익한. 2009.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221-248.
- 서은경, 손주영. 2012. 국내 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 관한 메타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9(1), 351-374.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6(1), 65-92.
- 서혜경. 2010.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41-167.
- 설문원. 2001.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1), 65-86.
- 설문원, 김익환.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시귀선. 2009.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59-188.
- 심성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 우수영. 2006.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질의/응답 기능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113-136.
- 윤여진, 김순희. 200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1-75.
-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 이상민. 2013.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기록학연구』 35, 3-40.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영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73-94.
- 이원규. 2005.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기록학연구』 12, 81-135.
- 이원영.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1), 5-20.
- 이윤주.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6, 147-200.
- 이은영. 2011.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65-188.
- 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이해영 외. 2007.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방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25-42.
- 이해영. 2011. 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93-112.
- 이해영.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77-201.
- 임준희, 이준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 임진수. 2006.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87-111.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장혜란, 이명희.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321-338.
- 장희정.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51-70.
-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 정경희. 2006. 국가기록원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83-303.
- 정경희. 2007a.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행태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377-396.
- 정경희. 2007b.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1), 165-186.
- 정경희. 2007c.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1-20.
- 조민정. 2001.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153-176.
- 조민지. 2006.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 최석현 외.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7-33.
- 최재혁, 김희섭. 2009.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77-98.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표순희. 2009.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351-370.
- 표순희. 2010. 실무자의 근거출판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문헌정보실무의 국내 적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19-239.
- 하은미, 이수상. 2007.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39-164.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13.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제3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수연, 정동열. 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59-78.
- 한현진, 이수상. 2008.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43-165.
- Pugh, Mary Jo.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Hye-Rhan, & Lee, Myoung-Hee. 2008. "Developing a Public Services Framework for the Region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321-338.
-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 Cho, Min-Jung. 2001. "A Study Policies for Activating Information Services at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GA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 153-176.
- Cho, Young-Sam. 2009.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77-114.
- Choi, Jae-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 Choi, Jae-Hyuk, & Kim, Hee-sop. 2009. "User Satisfaction of 'The Presidential Web Records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77-98.
- Choi, Seok-Hyun, et al. 2013.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Using Digital Exhibition of

-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7-33.
- Ha, Eun-Mi, & Lee, Soo-Sang. 2007. “A Study on the Online Finding Aids of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139-164.
- Han, Hyun-Jin, & Lee, Soo-Sang. 2008. “A Study on Use of Archival Information for Resource-bas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143-165.
- Han, Soo-Yeon, & Jeong, Dong Youl.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chive Service Quality Scale: Focused on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1), 59-78.
- Jang, Hee-Jung. 2012. “A Study on Evaluation of National Archives Websi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51-70.
- Jeon, Soo-Jin. 2008. “Analysis on Online Contents Services of Nation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127-152.
- Jo, Min-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157-184.
- Joung, Kyoung-Hee. 2006. “An Analysis on the Information - seeking Behaviour of Users in the Internet Board of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83-303.
- Joung, Kyoung-Hee. 2007a. “A Case Study on Archival Seeking Behavior of Korean History Teachers in High Schools: Focused on the Local Communities of History Teach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377-396.
- Joung, Kyoung-Hee. 2007b. “A Study on Copyright Problems for Promo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 Focused on Government Works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1), 165-186.
- Joung, Kyoung-Hee. 2007c. “Archival Reference Services Based on Market Segment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1-20.
- Kang, Hye-Jyung, & Kim, Yong. 2012. “A Study 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 in Mobile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1), 33-58.
- Kang, Hye-Jyung, Park, Jae-Hong, & Kim, Yong. 2010. “A Study 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RSS-Bas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2), 7-29.
-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3(3), 417-439.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39(3), 207-224.
-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 Kim, Hee-Jung. 2011. "A Study on Web Archiving Subject Analysis Based on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35-248.
- Kim, Hyun-Jee, & Rieh, Hae-Young. 2009.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for Web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Service Evaluation: Focused on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59-78.
- Kim, Jae-Hun, & Lee, Kyung-Hoon. 2006. "The Archival Exhibition Organized by the Archives of Johey Order of Korean Buddhis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3, 287-320.
- Kim, Jeong-Ae. 2011. "A Study on the Disclosure and Exemption of the Personal Dat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9, 225-268.
- Kim, Ji-Hyun. 2012. "A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Reference Servic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1), 167-187.
- Kim, Sol. 2013. "Application of Online Content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Elemen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59-79.
- Kim, Yeon-Joo. 2009. "Archives and Museum Exhibitions Compared: with the Emphasis on the Exhibitions Held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59-79.
- Kim, You-Seung, & Jeon, Jin-Han. 2011. "A Study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Services in the Government 2.0 Er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47-66.
- Kim, You-Seung. 2010a.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197-231.
- Kim, You-Seung. 2010b. "A Theoretical Study on Establishing Archive 2.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2), 31-52.

-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ed). 2013. *Theory of Records Management : Science of Evidence and Memory(3rd)*. Seoul: AsiaMunHwaSa.
- Kyung, Geon. 2002. "New Dir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Freedom of Information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 111-148.
- Lee, Eun-Young. 2011. "Designing the Archival Contents Sample for Education Based on Curriculum-standards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165-188.
- Lee, Jae-Yun, Moon, Ju-You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al Science in Korea wit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1(1), 345-372.
- Lee, Sang-Min. 2013.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3-40.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 Lee, Won-Kyu. 2005. "Operative Challenges in Relea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2, 81-135.
- Lee, Won-Young. 2005. "Improvement Plan for Internet Reference Services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5-20.
- Lee, Yoon-Ju. 2007. "A Study on the Evaluating Standards On-Line Service for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147-200.
- Lee, Young-Sook. 2007.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for Public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73-94.
- Lim, Jin-Su. 2006. "An Analysi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 of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87-111.
- Nam, Jae-Woo, & Kim, Seong-Hee. 200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eb 2.0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3(2), 123-146.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Pyo, Soon-Hee. 2009. "A Study on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vidence-Based Library

- and Information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1), 351-370.
- Pyo, Soon-Hee. 2010. “The Study on the Applying Methods for EBLIP in Korean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4(3), 219-239.
- Rieh, Hae-Young, et al. 2007.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Centers and Archives: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25-42.
- Rieh, Hae-Young. 2011.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earch Terms in Archival Web Sites: A Cas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93-112.
- Rieh, Hae-Young. 2012.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and Archives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177-201.
- Ryu, Han-Jo, & Kim, Ik-Han, 2009. “A Study of the Developing Model of Record Contents: Focused on the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y Recor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221-248.
- Seo, Eun-Gyoung, & Son, Ju-Young, 2012. “Meta Analysis of the Websites of University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351-374.
- Seo, Eun-Gyoung, Joung, Kyoung-Hee, & Choi, Sang-Hee. 2006. “Strategies for Improving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s a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1), 65-92.
- Seo, Hye-Gyung. 2010. “Toward a Revitalization of the Children’s Education Program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141-167.
- Seol, Mun-Won, & Kim, Ik-Han, 2006.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nts Based on Relational Structure of Minutes of State Council and Records of Ministries in the Period of Rhee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15-136.
- Seol, Mun-Won. 2001. “A Study on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r Enhancing Public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2(1), 65-86.
- Seol, Mun-Won. 2008. “A Study of Strategic Planning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249-271.
- Seol, Mun-Won. 2010.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3-43.
- Seol, Mu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 Si, Kwi-Sun. 2009.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159-188.
- Sim, Sung-Bo.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
- Woo, Su-Young. 2006. "Strategies for Improving Electronic Question/Answering Function for the Activa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of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1), 113-136.
- Yim, Jun-Hee, & Lee, June-Key. 2010. "A Study on the Information Providing Behavior of Public Servants Respon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179-225.
- Yoon, Yeo-Jin, & Kim, Soon-Hui. 2009. "A Study on Operating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51-75.
- Youn, Eun-Ha. 2012. "Archival Reference Service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63-179.

## [부록 1]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논문 목록

No	저널*	연도	논문제목	주제**
1	학	2001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법
2	연	2001	공개열람(ACCESS) 및 개방성(OPENNESS)	법
3	비	2001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법
4	연	2001	WEB을 통한 기록물 공개 열람 제공: 축복인가 저주인가?	서비스
5	연	2002	정보공개에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	법
6	학	2003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법
7	학	2003	The concept of finding aids	서비스
8	학	2004	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에 관한 고찰	서비스
9	연	2005	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과제	법
10	정	2005	국회기록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서비스
11	학	2006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표 현황 및 기준 분석	법
12	학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비스
13	학	2006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질의/응답 기능 개선방안	서비스
14	학	2006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서비스
15	비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기록의 연관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방안	서비스
16	연	200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 전시	서비스
17	도	2006	국가기록원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분석	이용자
18	정	2007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 연구	법
19	연	200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	서비스
20	연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서비스
21	학	2007	공공기록물 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
22	학	2007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에 관한 연구	서비스
23	도	2007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기록물 이용행태 사례연구	이용자
24	도	2007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고찰	이용자
25	연	2007	기록관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평가기준설계에 관한 연구	평가
26	학	2007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방향	평가
27	정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법
28	연	2008	ERMS 표준에 나타난 접근통제 요건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법
29	학	2008	중국의 기록물 공개 및 서비스 현황	법
30	학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서비스
31	학	200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서비스
32	학	2008	자원기반학습을 위한 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
33	정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이용자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비스
34	학	2009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법
35	연	2009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법
36	연	2009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법
37	학	2009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법
38	문	2009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Web2.0 적용에 관한 연구	서비스

No	지널*	연도	논문제목	주제**
39	학	2009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서비스
40	학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서비스
41	정	2009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감시자의 정보추구에 관한 질적연구	이용자
42	학	2009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	이용자
43	학	2009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형 개발과 서비스 평가	평가
44	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법
45	연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
46	학	2010	RSS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서비스
47	학	2010	국가기록원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서비스
48	연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서비스
49	정	2010	온라인 역사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비스
50	연	2010	기록정보콘텐츠의 품질향상 방안 연구	서비스
51	학	2010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서비스
52	문	2010	User and usage information on Websites of U.S. State Archives	이용자
53	학	2010	웹 아카이빙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 분석	평가
54	연	2011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법
55	학	2011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법
56	학	2011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서비스
57	학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서비스
58	연	2011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서비스
59	연	2011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절차에 관한 연구	서비스
60	학	2011	기록관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이용자
61	학	2011	A proposal of a quality model for cultural heritage archive portals	평가
62	학	2012	기록정보서비스와 정보공개	서비스
63	학	2012	모바일환경에서의 SNS를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서비스
64	학	2012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
65	학	201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이용자
66	학	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평가
67	정	2012	국내 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 관한 메타분석	평가
68	학	2012	국가기록관 웹사이트의 평가에 관한 연구	평가
69	연	2013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법
70	연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법
71	연	2013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법
72	학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서비스
73	학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서비스

\* 학술지명: 학(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연(기록학연구), 문(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정보관리학회지), 비(한국비블리아학회지), 도(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주제: 법(법·제도·전략), 서비스(서비스 개발 및 개선), 이용자(이용자 연구), 평가(서비스 평가)

